

홍콩의 모국어 교육과정 체제 연구 —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에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

이민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 이 논문은 제7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0.6.1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신 토론자 최영인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I. 머리말
- II. 정책의 도입 배경
- III. 홍콩 교육과정 체제의 특징
- IV.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의 구조 및 구성 원리
- V. 홍콩 고등학교의 중국어 과목 평가
- VI. 결론

I. 머리말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이면서,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등 산업 구조 및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고,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 연대·참여의식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교육부, 2017: 1). 그러나 현재의 고교교육은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문이과 분반 등 획일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고자 한다(교육부, 2017: 1).

지금까지 무학년제 등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시도들¹⁾이 있었으나, 이번

1)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교육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는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 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제시한 지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교육과정의 구체적 운영, 그리고 졸업의 세 가지 제도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교과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교과 교육과정에 주는 영향,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짚어보는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점제 자체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즉 전반적인 학사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 분야에서는 대체로 논의의 흐름과 진행 양상을 지켜본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의 발로이며, 결국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 신장으로 이어진다면 교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수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홍콩 교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모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홍콩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선택 과목의 양적 나열보다는 핵심과목의 깊이 있는 학습에 주력하며,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과 유사한 홍콩중등졸업 시험에도 이러한 필수와 선택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확대와 배열 등 외적 구조의 재정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보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무학년제, 학점제 운영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범학교까지 선정하여 운영되다가 유아무야 되었었다(김정빈, 2017: 23).

II. 정책의 도입 배경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교육부, 2017: 4)’, 혹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김진숙·이광우·조보경·이민형·임유나, 2018: 23)’로 정의된다. 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 필수 이수학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제도 측면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및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의 안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졸업제도는 출석일수가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질적 졸업 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다(교육부, 2017: 4).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 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제시한 지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는 위 세 가지 제도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방향, 제도적 조건, 교육과정 측면과 관련된 논의로는 홍후조(2018), 김란주·서경혜(2018) 등이 있다. 홍후조(2018)에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을 이전의 단위제나 대학 학점제와 비교 검토하고, 미국의 고교학점제에 근거하여 과목 이수조건과 학년 진급과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김란주·서경혜(2018)에서는 다양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담론들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정책이 기존의 공급-선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발표 초기에 기존의 단위제와 비교되는 학점제의 개념을 해외

사례 등을 빌어 탐색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한 것이다. 이때 탐색한 해외 사례들은 주로 총론의 관점에서 운영 방법과 시수 등이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명애·박혜영·성경희·변태진·김성혜·김영은 외(2018)에서는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교육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이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의견 조사에서 핵심 교원들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며 필수 과목은 학년 단위 평가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수업 단위 평가와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와 관계없이 교과(목) 및 수업별 최저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김천홍·홍수진(2018)에서는 학생 평가와 수능 평정의 잠정안들을 조합하여 8개의 안을 제시하고, 고교학점제에서 학생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 방법의 혁신성 추구, 교육외적 요소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제도에 대해서 이광우·이근호·김진숙·민용성·이경언·권점례 외(2018)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방안을 알아보면서 조기졸업의 자격 요건으로 졸업 최소 이수 학점, 학업성취도, 사회적응력 등을 들고 그 절차로는 학교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교육청에서 최종대상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재이수의 경우 재이수 적용 교과와 운영 방식,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교육과정 구조, 그리고 평가, 졸업 제도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교과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짚어보는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교육의 한 분야인 국어교육 쪽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희소한 연구들 중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깊은 두 가지 연구를 제시하자면

김진숙 외(2018), 노은희·이광우·김진숙·신향수·변희현·주형미 외(2019)를 들 수 있다. 김진숙 외(2018)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등 교과와 구조적 변화를 거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쟁점으로 제시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가 고교학점제에서 교과가 당면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숙 외(2018)는 고교학점제에서 교과 재구조화의 개선 방향으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의 구분을 벗어나 각 교과군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목의 모듈형 개발, 수준별 과목의 세분화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이러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노은희 외(2019)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개념인 평가, 그 중에서도 ‘이수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 이수 기준의 요소로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성취평가제의 수준을 재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 재구조화, 그리고 이수 기준 외 교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단위 학교에서의 자율성 신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일 수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 그리고 평가 등의 교과와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하는 시도와 맞물릴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심화를 위하여 학생의 진로 적성, 학습 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교육부, 2019) 다음 <표 1>과 같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예시로 들고 있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예시)〉

- ① **진로집중형**: 진로설계·체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보조
- ② **학습몰입형**: 교과 별 심화 이론, 과제 탐구 등 심층적 학습 시간 운영
- ③ **보충수업형**: 학습 결손, 학습 수준 미흡 학생 대상 보충수업
- ④ **동아리형**: 토론 및 학습동아리 운영, 교과에 관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운영
- ⑤ **프로젝트형**: 교과 융합학습을 위한 PBL 수업, 직업 체험 프로젝트 등 운영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단위학교가 학교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안을 보면 대체로 필수 이수단위 유연화, 대체 이수 허용, 이수 과목 수 제한 완화, 수업량 유연화(교육부, 2019: 15) 등 교과 내적 체제보다는 총론적인 부분의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홍콩의 고교 교과 교육과정 체제가 현재 고교 학점제에서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자율화 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일 수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각국의 고교학점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해외 사례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권은 교육의 체제가 중앙에 있지 않고 지방 분권적이며, 입시 등 교육의 전반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교육 체제를 취하고, 학점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실시하며 대학 진학을 중요시하는 등 우리와 유사한 교육 맥락을 가지고 있는 홍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홍콩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III장에서는 홍콩 교과 교육과정의 외적 구조, 교과목 체제와 운영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IV장에서는 모국어 교육과정의 내적 체

제를 분석한다. 또한 V장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 평가에 대해 다룬다. 홍콩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선택 과목의 양적 나열보다는 핵심과목의 깊이있는 학습에 힘쓰면서도, 핵심과목 안에서도 필수와 선택 부분을 나누어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홍콩중등졸업시험에서도 학교 기반평가를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교육과정 재구조화 논의에서 선택과목의 선택, 그리고 배열 등 외적 구조의 재정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홍콩 교육과정 체제의 특징

1. 홍콩 교육과정의 개요

홍콩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740만명이다. 그리고 홍콩은 우리와는 달리 다언어 공동체이며, 사용 언어는 광둥어 89%, 영어 4.1%, 보통화(표준 중국어) 1.85%이다(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20).²⁾ 하지만 홍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높고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여럿이다.

홍콩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후기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거의 10년간 준비하여 2009년 9월에 실행하였다. 이 신규학과편제(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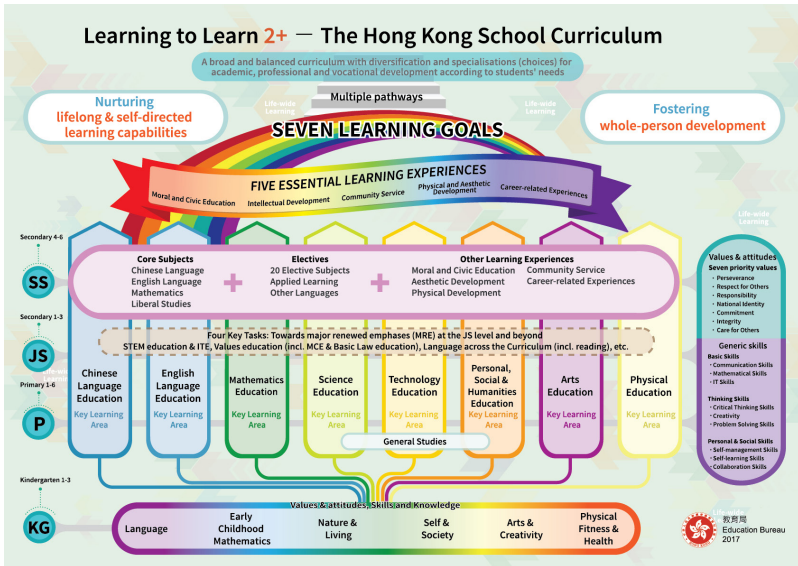
2) 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의 ‘홍콩약황’을 근거로 기술한 것이다(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00/contents.do 2020년 6월 6일 검색)

Academic Structure)에서 홍콩은 기존의 영국식 학제인 6-5-2-3 학제를 버리고 6-3-3-4 신학제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기중등교육체제(Senior secondary academic system, 고등학교 과정)가 기존의 2+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고, 대학은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³⁾ 그리하여 현재 홍콩 학생들은 신규학과편제에 따라 12년(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홍콩중등졸업시험(Hongkong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 이하 'HKDSE')을 치른다(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6).⁴⁾

〈그림 1〉은 홍콩 교육과정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홍콩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7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평생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교가 학생의 능력, 관심사 및 배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Education Bureau, 2018).

3) 김정빈(2015)은 이러한 새로운 홍콩 학제의 특징으로 계열의 통합과 유연한 진로 탐색, 필수와 선택의 균형, 학생의 진정한 선택권 보장, 수평적인 직업교과과정 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홍콩 신규학과학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인문계, 자연계, 예술계 등의 계열을 없애고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빈, 2015: 5-10).

4) 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의 '홍콩의 교육제도'를 근거로 기술한 것이다(http://overseas.mofa.go.kr/hk-ko/brd/m_1563/list.do 2020년 6월 6일 검색).



〈그림 1〉 홍콩의 학교 교육과정 프레임워크(Education Bureau,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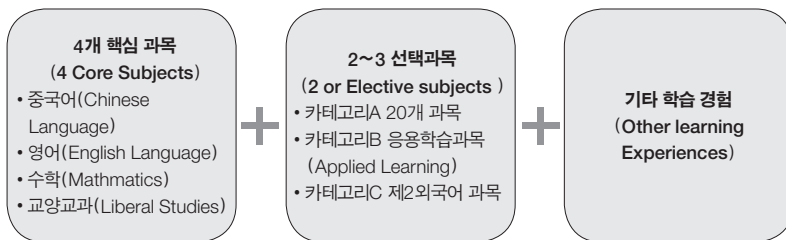
〈그림 1〉은 홍콩 교육과정의 목표, 단계, 그리고 구성 요소와 핵심 학습 영역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홍콩 교육과정은 최상위에 7가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국가적, 세계적 정체성(national and global identity), 지식의 넓이(breadth of knowledge), 언어 유창성(language proficiency), 공통기능(generic skills), 정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삶에 대한 계획(life planning), 건강한 라이프스타일(healthy lifestyle)이 홍콩 교육과정의 목표이자 중요 핵심 키워드이다(The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이하 CDC), 2017a: 6).

홍콩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학생들이 배우는 전체 학습 경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학생들은 전인적인 개발을 위해 도덕 및 시민교육(Moral and Civic Education), 지적 개발(Intellectual Development), 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 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 신체적, 심미적 개발(Physical and Aesthetic Development), 직업연계체험(Career-related

Experiences)와 같은 5가지 필수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여야 한다(CDC, 2017a: 7). 이 5가지 필수 학습 경험은 초등부터 중등 교육과정 단계에서 중국어 교육,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개인적, 사회적, 인성 교육(Personal, Social and Humanities Education), 과학교육, 기술교육, 예술교육, 체육 교육인 8가지 핵심 학습 영역(Key Learning Area, KLAs)으로 구체화된다(CDC, 2017a: 8).

2. 홍콩 교육과정의 체제와 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홍콩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목의 열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CDC, 2017a: 29-30).



<그림 2> 홍콩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의 구조(CDC, 2017a: 29-30).

홍콩 고등학생들은 핵심 과목, 선택과목, 그리고 기타 학습 경험(OLE)의 세 가지 형태의 교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먼저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하여 3년간 중국어(Chinese language, 모국어), 영어(English language), 수학(Mathematics), 교양 교과(Liberal Studies)의 핵심 과목을 4가지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핵심과목에 더해 선택과목을 2~3과목 이수해야 한다(Education Bureau, 2018). 마지막으로 기타학습경험(Other Learning Experiences)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도덕 및 시민 교육, 심미적 개발, 신체 발달, 지역 사회 봉사 및

직업 연계 경험을 포함한다(CDC, 2017a: 31-34). <표 3>은 이중에서 홍콩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공하고 있는 선택과목을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3> 홍콩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Education Bureau, 2019)

핵심학습영역(KLA)과목	
중국어 교육	중국문학
영어 교육	영미문학
개인적, 사회적, 인문학 교육 (Personal, Social and Hunaities Ed)	중국사
	경제
	윤리 및 종교
	지리
	역사
	관광과 접객교육
예술교육	음악
	시각예술
체육교육	체육교육
과학교육	생물
	화학
	물리
	통합과학
공학교육	비즈니스, 회계와 금융
	디자인과 응용 공학
	보건 관리 및 사회 복지
응용학습 과목	
창의성 연구	
서비스업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응용과학
비즈니스, 경영과 법
공학기술과 생산
응용중국어(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을 위한)
기타 6개 언어 과목
프랑스어
독일어
힌두어
일본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표 3〉과 같이 홍콩에서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세 가지 범주인 A, B, C 범주로 나뉘는데, 이는 홍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격인 홍콩중등졸업시험이 구분한 범주에 따른 것이다. 이 범주의 기준은 평가의 주체와 방법이다. 우선 A 범주 과목은 핵심학습영역(KLA)⁵⁾과 연계된 선택과목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내용의 엄밀성, 학생과의 관련성 및 과목 간 횡적 일관성과 같은 상호 연계 요소의 균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은 7가지 핵심학습영역의 심화를 염두에 둔 과목들로 HKDSE에서 실시하는 지필 및 구두시험에서 5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HKEAA, 2020a).

그리고 B 범주 과목인 응용학습(Applied Learning)은 우리나라의 직업 계열 과목으로, 창의적 연구,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상업 및 경영과 법, 서비스, 응용과학, 공학과 생산 등의 과목을 포괄한다. 응용학습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 넓은 직업 세계와 연계된 학습 환경과 경험을 제공한다. 만약 직업 진로 관련 교과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2~3개의

5) 8개 핵심학습영역 중 수학이 제외되어 있다.

선택 범위 안에서 직업교과과정에 속해 있는 교과를 1개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학생이 선택한 교과과정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엔 학교 내에서 이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한 교과과정별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가서 이수하면 된다(김정빈, 2015: 9). 대체로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자체 학교 기반 평가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A 과목 점수와 보정하여 합산하게 된다(HKEAA, 2020a).

마지막으로 C 범주 과목은 다양한 외국어 과목들을 다루며, 영국의 평가 기관인 케임브리지 평가 국제 교육(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약칭 Cambridge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AS레벨 시험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맞추어 평가한다. 이 C 범주 과목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등의 6개 다른 언어의 선택과목을 제공한다(HKEAA, 2020a).

요컨대 홍콩과 우리나라는 핵심(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군, 기타학습경험(창의적 체험활동)의 유사한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목 열개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교육부, 2020: 56-62).

<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목 열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기초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체육	
	예술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표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구조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4개 교과영역과 이를 구체화한 9개 교과(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교과영역과 9개 교과(군)은 홍콩의 핵심학습영역(KLA)과 같은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9개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여, 각각을 모두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에 더불어 기초와 탐구 영역에서는 7개 공통과목을 제시하여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콩의 핵심학습영역은 바로 필수 이수 단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홍콩에서 ‘필수 이수’로 배정한 것은 핵심과목뿐으로, 나머지는 선택과목 A,B,C 범주에서 골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과목의 수는 4과목으로 우리나라의 7과목⁶⁾보다 적어 보다 집중적인 핵심과목의 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핵심과목과 연계된 선택과목의 구조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의 4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3과목으로 7과목이나 되는 선택과목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핵심과목과 연계된 선택과목은 중국문학(중국어), 영미문학(영어)뿐으로 교과군 내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나아가는 심화된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양상이 다르다. 특히 주요 핵심과목 중 하나인 수학은 선택과목 자체가 없다.⁷⁾

요컨대 홍콩은 다양한 교과군의 필수 이수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등의 과목 심화, 연계를 강조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핵심과목에 있어서는 적은 수의 핵심과목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핵심학습영역과 관련된 선택과목, 직업계열 과목인 응용학습과목, 그리고 외국어 과목 등 서로 다른 범주의 선택과목군을 동등

6)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다.

7) 하지만 핵심과목 자체가 필수 부분과 심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선택과목 개설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즉 필수 부분만 개설할 수도, 심화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

배열하고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 과목의 깊이 있는 이수와 선택의 ‘폭’을 강조하는 선택과목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홍콩 교과목 체제의 특징은 <표 5>와 같은 각 구성 요소의 시간 할당에서도 알 수 있다.

<표 5> 홍콩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할당 및 운영 시간(CDC, 2017a: 29)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요소		시간 할당	시수
4가지 핵심과목	- 중국어 - 영어 - 수학 - 교양 교과	45-55%	1,125-1,375
2~3가지 선택과목	- 핵심학습영역 연계 선택과목 - 응용학습과목 - 기타 언어과목	20-30%	500-750
기타학습경험	- 도덕 및 시민교육 - 지역사회봉사 - 직업연계경험 - 심미적 개발 - 신체 발달	10-15%	250-375

<표 5>는 홍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교과와 선택교과,

그리고 기타학습경험의 시간 배당 및 운영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요소가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실질적 비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율(교과 88.2%, 창의적 체험활동 11.7%)과 비교해 보면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은 10-15%로 우리나라와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과 측면에서는 핵심과목이 45-55%, 선택과목이 20-30%로, 우리나라의 필수단위와 자율편성단위의 비율(필수 46%, 자율편성 42%)과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의 자율편성단위의 비중이 홍콩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⁸⁾ 즉 홍콩은 핵심과목

8)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의 총 이수단위(204단위) 중 교과는 180

의 수는 우리나라보다 적고, 핵심과목에 할애하는 시간 비중은 더 높아, 핵심 과목 학습의 비중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초 점이 되는 모국어 핵심교과에 해당하는 중국어 교과에 3년간 할당된 시간은 전체의 12.5~15%(313~375시간) 정도로(CDC, 2017a:83).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어 교과군의 필수 이수단위는 10단위이며 전체의 5.5%로 핵심교과의 할당 시간 비중이 홍콩에 비해 더 낮다.

요컨대 고교학점제가 정착된 홍콩은 핵심과목, 선택과목, 그리고 기타 학습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와 유사한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 운영 측면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과목 개설 측면에서는 홍콩은 필수로 배워야 하는 핵심과목의 수가 우리나라의 과목수보다 적고 이수 비중에 있어서는 핵심 과목 이수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핵심과목을 더 많은 시간을 이수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핵심과목(중국어, 영어, 수학, 교양교과)과 연계된 선택과목은 중국문학, 영미문학뿐으로 교과군 내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의 심화된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양상이 달랐다. 즉 심화 연계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열 선택과목인 응용학습군과 핵심학습영역 연계 선택과목, 외국어 선택과목의 세 범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간 칸막이는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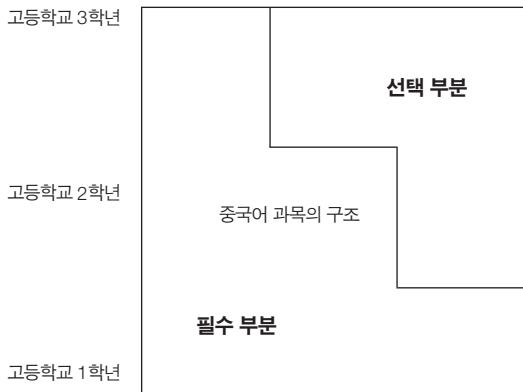
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이다. 또한 교과 중 필수이수단위는 94단위, 자율편성단위는 86단위이다. 해당 교과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의 홍콩 ‘핵심교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필수이수단위’는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일부 선택과목의 단위수도 포함되어 있는 등, 미묘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각 나라의 공통과 필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IV.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의 구조 및 구성 원리

III장에서 교과 재구조화와 관련한 교과목 체제, 그리고 핵심과목과 선택과목의 관계 등 교과 교육과정의 외적 구조를 고찰하였다면, IV장에서는 홍콩 교과 교육과정의 내적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홍콩 교과 교육과정 체제는 핵심과목이라고 할지라도 필수부분과 선택 부분으로 구분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를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을 예로 살펴본다.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은 ‘중국어’와 ‘중국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콩 고등학생 90%가 선택하는 핵심 과목으로, 중국어 교육 내용 영역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학, 중국 문화, 품덕과정의(品德情意), 사유(思惟), 중국어 자율학습과 같은 9개 학습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사소통, 문화유산의 전달, 그리고 사고력 함양 등을 중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내용 영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문학’은 핵심과목 ‘중국어’와 연계된 선택과목으로, ‘중국어’와 함께 홍콩에서 모국어 교육과정 패키지를 구성한다. 이 ‘중국문학’은 문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과목의 취지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해 문학 연구를 통합하고 심화하여 문학 능력 신장과 예술적 취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어, 중국문학 교과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과목 운영의 구조이다. 이 과목 운영의 설계 원리,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의 구조 및 설계 원리(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28)

〈그림 3〉에서 홍콩의 중국어 과목은 핵심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필수부분과 선택부분으로 나누어 선택부분에서 최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홍콩은 고등학생 90%가 넘게 듣는 핵심교과 중국어에서도 필수 부분과 선택 부분을 위와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 고등학교 2학년(s5)때부터 학생들의 요구, 흥미, 능력, 교사의 선호와 준비,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택형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 부분을 높일 수 있다. 이때 필수 부분은 전체 중국어 수업 시간의 약 67~83%를 차지하고, 선택 부분은 수업 시간의 약 17~33%를 차지한다(CDC, 2017a: 83).

이때 필수부분에서는 앞서 중국어 교과와 내용 영역으로 언급한 9개 학습 영역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학, 중국 문화, 품덕과 정의(品德情意), 사유(思惟), 중국어 자율학습 등이 주로 교수·학습된다. 그리고 학습의 출발점으로서 학습자료로 12개의 지정된 중국 고전을 제공한다.

반면 선택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2~4개의 모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 한 개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할 수 있다. 이들은 필수부분과의 확장되고 보완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선택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며 교

수·학습한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28-32).

- 학생들이 문학, 문화, 대중 과학 및 번역 된 작품을 포함하여 고대와 현대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서를 확장하고 지평을 넓힌다.
- 각기 다른 모듈을 설계하려면 해당 모듈의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는 학습 및 평가 활동을 공식화해야 한다.
- 각 단위의 학습은 이론 또는 실습에서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학습 방향,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과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인생 경험에 맞춰 학습 동기와 관심을 향상시킨다.
- 모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상황을 만든다.
-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협력적이며 탐구적인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실제 활동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즉 중국어 과목의 필수 부분에서는 필수로 들어야 할 중국어 과목의 9 개 학습 영역과 엄선된 고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며, 선택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의 경험,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상황과 매체,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재, 예시 작품도 대중 과학, 번역 작품, 고대와 현대의 작품을 망라하여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모듈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28-32).

- 선택 모듈 1 : 영화 및 TV 작품의 걸작 각색
- 선택 모듈 2 : 드라마 워크숍
- 선택 모듈 3 : 소설과 문화.
- 선택 모듈 4 : 문화 주제.
- 선택 모듈 5 : 뉴스 및 보고서.
- 선택 모듈 6 : 멀티미디어 및 응용 작문.
- 선택 모듈 7 : 번역 작품 선독.
- 선택 과목 8 : 대중 과학 작품의 선독.
- 선택 모듈 9 : 표준 중국어(Putonghua)의 커뮤니케이션 및 적용

위와 같이 선택모듈은 필수부분의 내용 영역과는 별개로 보다 융합적이며, 대중 과학 작품, 번역 작품 등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권장 선택 모듈의 예시는 다

선택 모듈 1 : 영화 및 TV 작품의 걸작 각색

1. 학습 목표

걸작을 읽고 걸작을 각색한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보고, 걸작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걸작을 느끼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삶의 품격과 문화적 문해력을 향상시킵니다.

2. 학습 포인트

걸작과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의 생각 느낌, 예술적 분위기를 걸작에 맞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걸작과 걸작을 각색한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의 표현 방법 및 효과를 분석, 비교, 평가, 감상, 평가한다.
걸작의 내용과 형식의 아름다움, 걸작을 각색한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을 감상한다.
걸작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3. 학습 결과

걸작의 이념적 함의와 예술적 표현, 걸작을 각색한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걸작과 걸작 각색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의 표현 방법 및 표현 효과를 분석, 비교, 감상,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고전 작품을 읽고 걸작 각색한 것을 감상하며, 삶의 품격과 문화적 문해력을 높이고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의 재미를 느낀다.

4. 학습 평가 조언

이 단원은 학교 기반 평가를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 과정이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생의 학습 결과를 살펴보고,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학습 효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학습이 끝날 때, 교사는 총괄 평가를 하고 적절한 평가 활동을 마련하며, 학생 전체의 학습 효과를 알아야 한다. 평가는 다양한 평가활동이어야 하며, 시험 답안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읽기와 감상을 쓰는 것, 텍스트 평가, 보고서 분석, 구두 보고, 토론 등

총괄 평가

예 1

걸작과 걸작을 각색한 영화 혹은 텔레비전 작품을 선택하여 보고 평가 보고서 작성하기

예 2

걸작과 걸작을 각색한 영화 혹은 텔레비전 작품을 선택하여 수업 시간에 반 전체의 토론을 유도한다.

예 3

같은 걸작을 각색한 서로 다른 영화 혹은 텔레비전 작품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수업 때 보고한다.

5. 참고자료

또한 이러한 선택 모듈 외에도 학교 자체 제작모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 단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28-32).

- 선택 단위의 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함.
- “고전 작품의 독해”, “말하기 역량”, “대중문화” 등의 학습 내용은 과정의 권장선택모듈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의 강점과 교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교 기반의 교과 과정 특성을 가짐.
- 시대의 사회 발전에 대응하여 시대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지식, 기술 및 긍정적인 가치를 소개함.
- 권장 선택 모듈의 예를 참조하여 자체 제작 모듈과 권장 선택 모듈의 품질 및 수준 요구 사항이 유사하도록 함.
- 고등학교 단계의 학습 결과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 및 학습 단위의 학습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단위의 예상 학습 결과를 공식화함.
- 학습 목표의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은 코스 목표, 학습 우선순위 및 학습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졸업 시험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음.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 모듈은 학교와 교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 학교 자체 모듈을 제시할 때는 다른 권장 선택 모듈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선택과목 ‘중국문학’도 핵심교과 ‘중국어’와 같이 필수부분과 선택부분으로 구분되며, 설계 원칙 및 유의점도 동일하다. 단 ‘중국문학’에서는 선택과목의 취지를 살려 ‘작가 탐색, 작가 선택 독서, 명문 감상, 문학 주제, 현대 문학 선독, 홍콩 문학, 극문학, 비평, 문학작품의 인물형상, 문학 창작, 원작자색’의 권장 모듈이 제시된다.

이러한 선택 부분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필수 부분의 특정 학습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한 선택 모듈 1과 관련한 필수 부분과 선택 부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125).

〈표 6〉 중국어 과목에서의 필수부분과 선택 부분 관계 사례

단위	선택 단위	필수 부분과의 관계
1	• 선택 모듈 1 : 영화 및 TV 작품의 결작 각색	이 단위는 주로 필수 부분의 읽기, 듣기 및 문학 영역의 확장이며, 필수 부분의 학습을 강화하고 보완한다. - 학생들은 필수 부분의 모듈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학습하고 작품의 이념적 내용과 작문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시청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이 선택 모듈은 학생들이 유명한 책을 읽고 유명한 책을 각색한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을 시청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 삶의 품격 및 문화적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필수 부분의 읽기 범주를 통합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배운 내용을 듣고 느끼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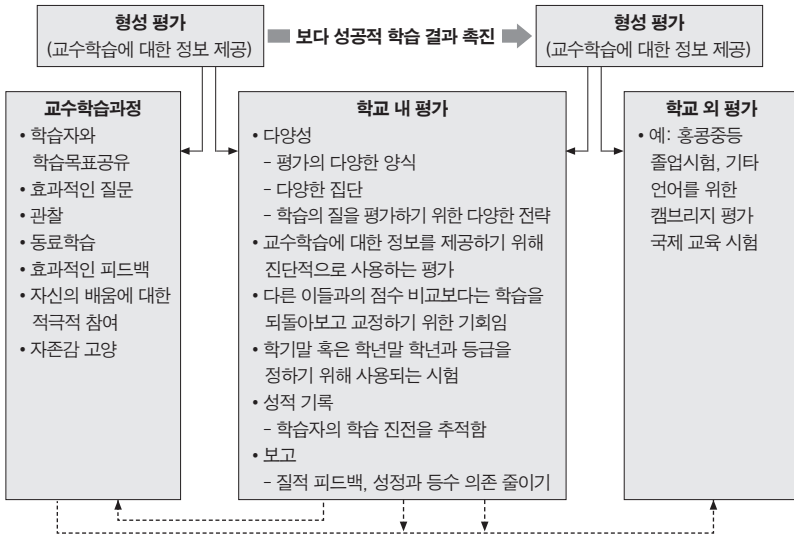
위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즉 홍콩의 모국어 교육과정은 핵심과목 중국어, 선택과목 중국문학이라는 다소 단순한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각 과목 내를 필수부분, 선택부분으로 나누어 단위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심과목 중국어에서는 주요 내용 영역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학, 중국 문화, 품덕과 정의(品德情意), 사유(思惟), 중국어 자율학습과 같은 9개 학습 영역과 엄선된 고전 작품에 대한 학습은 필수 부분으로 배정하여 학생들이 꼭 학습하게 하면서, 선택 부분에서는 단위학교의 맥락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 언어 사용의 맥락을 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모듈을 개설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수·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V. 홍콩 고등학교의 중국어 과목 평가

〈그림 4〉는 홍콩 학교 평가의 전체 일개를 나타낸 것이다.

홍콩 학교 평가의 프레임워크



〈그림 4〉 홍콩 학교 평가의 프레임워크(CDCb, 2017: 15)

〈그림 4〉는 홍콩 교육과정이 상정하고 있는 형성 평가와 총괄평가의 상호관계,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의 관계, 학교 내 평가와 학교 외 평가(공개 평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홍콩은 우리나라가 학교 내신을 대학 입학 점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내 평가를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다. 이때 학교 내 평가는 학교 내에서 성적과 등급을 측정하고, 학습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피드백하는 데 활용하거나,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홍콩중등졸업시험의 한 부분으로서의 ‘학교 기반 평가(School Based Assessment, SBA)’로서 활용된다.

학교 내 평가는 홍콩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과정을 3년 동안 교수·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학교는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그리고 실제 학습 진행 상황, 학생의 능력, 태도 및 습관을 고려하고 다양한 전략과 평가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필 및 구두 평가, 오픈북 테스트, 프로젝트, 에세이, 학습이력파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

評核局聯合, 2017a: 65-66).

그리고 이러한 학교 내 평가를 통해 3년간의 학습 진도를 마친 학생은 홍콩중등졸업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핵심과목인 ‘중국어’, 그리고 선택과목인 ‘중국문학’ 모두 시험을 응시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과 같은 위상을 가진 홍콩중등졸업시험에서는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기 쉬운 항목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모든 학습 구성 요소를 평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는 달리 지필, 구두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일제히 치르는 공개시험과 학교기반평가의 점수가 합쳐져 산정되어 공개된다. 이 공개시험과 학교기반평가는 각각 8:2의 비율을 보인다. 이중 핵심과목인 ‘중국어’의 개요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2023 HKDSE 시험 개요(HKEAA, 2020b)

부분	내용	비중	시험 형식	시험시간
공개 시험	시험 1 : 읽기 능력	24%	필기	1시간 30분
	시험 2 : 쓰기 능력	24%	필기	1시간 30분
	시험 3 : 듣기 및 종합 능력	18%	필기	약 1시간 30분
	시험 4 : 말하기 능력	14%	구어의사소통	25분
학교 기반 평가	필수부분 : 독서활동	6%	독서활동 점수 1단위	
	선택부분(2개 단위) 일상 학습 성과 단원 종결 성과	14%	각 단위 당 점수 1단위, 선택부분은 총 점수 2단위를 제출	

먼저 일제히 치르는 공개 시험에서 평가하는 평가 내용은 ‘필수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및 사고 및 기타 능력(9개 학습 영역)에 한정된다. 이때 읽기,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치르며 그 외 학습 영역인 문학, 중국문화, 품덕과 정의(品德情意)는 시험 자료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중국어 자율학습 영역은 ‘학교 기반 평가’

의 독서활동을 통해 반영된다(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 2017a: 68). 독서활동은, 교과서 외 다양하고 능동적인 독서활동의 여부로 평가되며 매일 독서활동을 기록한 내용과 보고서 내용의 질 평가로 이루어진다((HKEAA, 2019: 5).

그리고 선택 부분은 학교기반평가로 평가한다. 학교마다 채택한 2개 단위의 점수가 각각 형성평가와 총괄 평가로 평가되어 반영된다.

기본적으로 홍콩중등졸업시험은 절대평가로 평가된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5개의 등급을 설정하고 5단계가 최고 등급이 되며 1 단계 이하의 점수는 “(U)” (등급없음)으로 표기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통합 능력을 각각 5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4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한 것은 다음 <표 8>과 같다(HKEAA, 2020a).

<표 8> 중국어 교과 전체 등급 해설(HKEAA, 2014)

제 5단계	언어 능력은 성숙하고 사려 깊고 유연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고 포괄적으로 확장 할 수 있다. 내용을 깊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내용과 표현 기술 측면에서 설득력있게 의견을 낼 수 있다. 표현은 적절하고 섬세하며,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명확하게 정리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명확하며, 단어가 풍부하며 문장과 단어에 능숙하다.
제 4단계	언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추론이 체계적이다. 여러 자료를 완벽히 통합하고 적절하게 확장하며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뚜렷하게 한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견은 잘 정리되어 있으며 합리적이다. 또한 표현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문장과 언어가 적절하게 사용된다.
제 3단계	언어 수행이 보통이며, 합리적인 사고활동이 가능하다. 여러 자료를 적절히 선택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적절히 확장하고 주요 맥락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단한 의견을 말하고 추론할 수 있다. 표현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유창하고 완전하며, 문장과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제 2단계	언어 수행이 평균이며, 평균적인 사고활동이 가능하다. 몇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간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명확하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으며, 단어 사용은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제 1단계	언어 수행이 적절하며, 간단한 사고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대략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내용의 큰 줄기와 사실,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단편적으로 전달하며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어 과목에서 성취수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절대평가를 사용하면서도 상대평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5등급 같은 경우 (*) (**) 등으로 5등급 사이에서의 성적을 구별하고 있다.

요컨대 홍콩의 평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학교 내 평가와 공개시험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과목 언어, 수학 등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이며, 핵심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더라도 필수부분과 선택부분을 구분하여 선택부분에서는 철저히 학교 기반 평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VI. 결론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리라는 기대가 내재되어 있는 제도이다.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등 그간 한국 교육계에 주창되었던 다양한 가치와 지향들이 해당 제도의 지향에 함축되어 있다.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제를 제시한지 근 3년이 흐르고, 또 고교학점제를 현장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도입한 연구·선도학교가 약 400여 개교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고교학점제의 성공과 정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 총론 쪽보다 교과 교육 쪽에서는 이 고교학점제가 미칠 변화의 정체와 그 진폭에 대한 대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정부가 먼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 효과에 대한 의구심일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운영 원리에 대한 일종의 제안이지만, 대학 입시, 교원 제도 등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한계에 얽혀 있으며, 결국 그 성패여부도 이에 달려 있다. 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한계에 기반하여 충분히 구체화되면서도, 역으로 이러한 한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해당 제도의 효용이 달려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본래 해외의 사례에서 착안되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이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운용 양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개선의 시사점까지 얻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탐구할 때는, 그 제도가 터하고 있는 교육적 맥락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입시 경쟁이 심하고 중앙 집권적인 교육 정책 체제가 특징인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 운용의 시사점을 얻기에 유럽권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홍콩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물론 홍콩은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영국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고 다인종, 다언어 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학이 인구에 비해 소수라 대학 입시에 민감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교육부와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에서 교육 정책을 선도해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보이며, 교육과정 문서에 구체화된 세부 사항을 모두 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에서 정착된 제도로서의 고교학점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자체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국적인 과목 수요 조사를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후 국어 교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돌입할 때 홍콩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설된 선택 과목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되 양질의 학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하면, 공통과목보다는 선택과목의 학습에 주력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홍콩의 전체적인 교육과정 체제와 운영의 실체를 살펴본 결과

홍콩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도 선택과목보다는 핵심과목의 깊이 있는 학습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과목 선택권을 폭넓게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필수이수단위의 제한이 없으며, 현행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것처럼 선택과목 범주를 ‘~ 중에서 하나’ 식의 ‘칸막이’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군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직업계열 과목을 들을 수 있음으로 해서, 더 넓은 과목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선택과목의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고등학교급에 맞는 핵심 역량과 기본 소양을 탄탄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가 누릴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화를 교과 교육과정 체제 측면에서부터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도 단위 학교가 자율권을 누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교과 내재적 체제까지 이러한 자율성과 다양화가 침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필수 부분과 선택 부분의 분기, 그리고 선택 부분에서의 모듈 제시 등은 좋은 사례가 된다.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 속의 교육 내용을 세밀하게 제시하되, 이를 필수 부분과 선택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필수 부분에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과 같은 전통적인 9개 내용 영역을 충실히 가르치되, 선택 부분에서는 모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였다. 또한 해당 모듈의 운용 방식과 주제 등도 풍부하게 예시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단위 학교의 맥락에 맞게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지침을 국가 교육과정 내에 포함하고 있어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홍콩 교과 구조는 꼭 수강하여야 하는 필수(핵심)과목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듈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 단위도 허용하고 있어 이 자율성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셋째, 홍콩 고등학교 평가 체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학교 내 평가와 공개 평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각 평가의 목적과 성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홍콩에서 학교 내 평가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 정도를 점검하고 학년 내에서 진급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필수부분에서의 ‘독서활동’, 그리고 선택부분에서의 평가로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학교 내 평가가 교사의 ‘선발적 평가권’보다 ‘교육적 평가권’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김천홍·홍수진, 2018: 295). 그동안 교사의 학생 평가권은 선발적 평가권과 교육적 평가권이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성취수준 진작을 위한 형성평가로서의 교육적 평가 실천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본래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 내 평가는 ‘교육적 평가권’에 중심을 두고, 수능은 절대평가 평정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확인해 주는 역할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20.8.4.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부,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59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2019),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교육부,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910&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교육부 고시 제 2020-225호 일부 개정 포함)』, 세종: 교육부.
- 김란주·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113-138.
- 김정빈(2015), 『홍콩의 교육개혁과 시사점(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제 2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정빈(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 『교육비평』 40, 10-43.
- 김진숙·이광우·조보경·이민형·임유나(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18-8)』,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친홍·홍수진(2018), 「고교학점제의 학생평정 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279-301.
- 노은희·이광우·김진숙·신항수·변희현·주형미·김영은·지영래(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연구보고 RRC 2019-3)』,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이근호·김진숙·민용성·이경연·권점례·조보경·김현미·김기철·김현정·김현수·이수정·이민형·임유나(2018),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 수업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연구보고 RRC 2018-13)』,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애·박혜영·성경희·변태진·김성혜·김영은·박도영·양길석·임해미(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평가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18-3)』,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2016), 홍콩의 교육제도,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www.edb.gov.hk/en/curriculum-development/renewal/framework.html>.
- Education Bureau(2019), Senior Secondary Curriculum – An Overview and the Latest Development,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334.edb.hkedcity.net/new/en/18-19.php>.
- Hong Kong Examinations and Assessment Authority(2014), 香港中學文憑考試 中國語文科 整體等級描述,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www.hkeaa.edu.hk/DocLi>

brary/HKDSE/.

Hong Kong Examinations and Assessment Authority(2019), 香港中學文憑考試 2022 中國語文 校本評核教師手冊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www.hkeaa.edu.hk/en/sba/sub_info_sba/dse_subject.html?1&2.

Hong Kong Examinations and Assessment Authority(2020a), Introduction,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http://www.hkeaa.edu.hk/en/hkdse/introduction/>.

Hong Kong Examinations and Assessment Authority(2020b), 中國語文,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www.hkeaa.edu.hk/DocLibrary/HKDSE/Subject_Information/chi_lang/2023hkdse-c-clang.pdf.

The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2017a), Learning Goals, School Curriculum Framework and Planning(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Guide Booklet 02),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www.edb.gov.hk/en/curriculum-development/renewal/guides_SECG.html.

The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2017b), Assessment literacy and School Assessment Policy(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Guide Booklet 04),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www.edb.gov.hk/en/curriculum-development/renewal/guides_SECG.html.

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2017a), 中國語文課程及評估指引(中四至中六)》(2015年更新),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www.edb.gov.hk/tc/curriculum-development/kla/chi-edu/curriculum-documents.html>.

課程發展議會與香港考試及評核局聯合(2017b)《中國文學課程及評估指引(中四至中六)》(2015年更新), 검색일자 2020. 6. 6., 사이트 주소 <https://edb.gov.hk/tc/curriculum-development/kla/chi-edu/curriculum-documents.html>.

홍콩의 모국어 교육과정 체제 연구

—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민형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홍콩 교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모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목 개설 측면에서 홍콩은 필수로 배워야 하는 핵심과목의 학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홍콩의 모국어 교육과정은 과목 내부를 필수부분, 선택부분으로 나누어 선택 부분에서 단위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홍콩의 평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학교 내 평가와 공개시험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이며, 핵심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더라도 필수부분과 선택부분을 구분하여 선택부분에서는 철저히 학교 기반 평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핵심어 홍콩, 모국어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국어교육

ABSTRACT

Study of the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Curriculum in Hong Kong

—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high school credit system

Lee Min-Hyoung

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in the Korean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reviewing the system of the Hong Kong curriculum, focusing on the native language curriculum. Hong Kong has placed great emphasis on core subjects that are essential and has focused on opening elective courses and acquiring basic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e subject is divided into essential and optional parts, thereby increasing the autonomy of a school to select from the optional parts.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Hong Kong is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it consists of two aspects, namely school evaluation and public examination

KEYWORDS Hong Kong, Native Language Curriculum,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Language Education